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6, Vol. 25, No. 4, 1087-1104

중학생용 성심리검사의 타당화 연구
-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

박 영 숙† 박 소 연 전 영 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 한국음주문화 연구센터

본 연구는 중학생용 성심리검사(박영숙, 2001)의 단축된 척도 및 문항의 타당도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축된 중학생용 성심리검사는 성태도 검사, 성충동성 검사, 성대처행동 검사 및 성지식검사의 4개의 하위검사로 구성되어 있고, 총 10개척도, 전체 75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중학교 2학년생 499 명을 대상으로 검사의 양호도 분석과 구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성심리검사의 최종 개발 보고 때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확인하였으며, 검사의 내적합치도가 .606에서 .928 사이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세 검사 내 하위척도사이의 상관이 높을 뿐 아니라, 성태도검사와 성충동검사, 성대처행동 검사간의 상관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능력검사인 성지식검사를 제외한 세 검사간의 관련성이 고려된 연구모형과 4가지의 대안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연구모형인 검사 간 관련성을 고려한 3검사-10개 하위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도 동일한 모형이 지지되는지를 알아보고자 남녀 학생별로 적합한 요인모형을 살펴본 결과, 남녀학생 모두에서 연구모형이 대안모형보다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에 대하여 남녀 학생을 교차한 다중집단분석을 통하여 두 집단의 요인구조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중학생용 성심리검사가 타당한 도구임이 밝혀졌다.

주요어 : 성심리검사, 성태도, 성충동성, 성대처행동, 성지식, 청소년, 성행동

---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영숙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 02-3277-3565 / Fax : 02-3277-2841 / E-mail : parkys@ewha.ac.kr

성이 일상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성을 빼놓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성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를 질문한 Michael, Gagnon, Laumann과 Kolata (1994)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54%와 성인 여성의 19%가 하루에 적어도 한번은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급격한 신체적 발달과 함께 성적 탐색이 시작되는 청소년기에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Crooks & Baur, 2002).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고민을 분석한 결과, 성고민이 청소년들의 전체 고민거리 중에서 66.2%를 차지함으로써 이들에게 있어 성은 절대적인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순호, 2000). 특히 사이버 상담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현저하게 드러나는데, 사이버 상담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고민은 바로 성고민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청소년상담원, 1999; 조민자, 2000; 이경호, 2001).

청소년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그릇된 성에 대한 정보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방황하기 쉽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들은 또래집단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습득하지만, 이를 통한 정보습득은 그릇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옥복현, 2000). 특히 영화, 비디오, 인터넷 등의 다양한 형태의 매스미디어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사실과는 다른 잘못된 지식을 신념화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 성비행과 같은 행동을 유발하게 되거나 성과 관련된 갈등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명화, 1998).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잘못된 성에 관한 정보는 성태도 및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김혜원(2003)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에 관해 부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성태도에 있어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여성과 남성에게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성차별적 태도를 갖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남학생들의 상담에 있어서는 성문제의 원인이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성지식이나 성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청소년기는 성적 탐색이 시작되고 성적 행동이 증가되는 시기로서, 이 시기의 성행동은 개개 청소년들의 가치관 및 태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Crooks & Baur, 2002). 즉 성태도가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성태도는 부모의 가치관, 종교, 친구들의 태도, 연애경험, 신체적, 생리적 성숙 정도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장현갑 등, 1998). 그리고 청소년기 성태도는 일생동안 지속되는 성태도를 좌우하며, 책임 있는 성행동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태도는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좌절감을 가져다주기도 하고(김미주, 1997; 김막희, 2003), 나아가서는 원치 않는 임신, 성병 등 위험한 성행동이나 일탈적 성행동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만들기도 한다(Kotchick, Shaffer, Forehand, & Miller, 2001).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성고민과 성문제에 대한 상담적, 교육적 접근이 필수적이며, 효율적 접근을 위해서는 성태도나

지식 등에 관한 객관적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Lief, Gruber, & Grube, 2000).

이러한 배경에 따라 청소년의 성태도, 성충동, 성행동, 성지식, 그리고 대처행동을 측정함으로써 성상담 및 성교육, 성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등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중학생용 성심리검사(박영숙, 2001)를 개발하였다. 중학생용 성심리검사는 청소년과의 면담, 성상담 및 성교육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 국내 및 국외 청소년 성심리검사 구성 내용의 분석, 성교육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 결과 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된 검사로서 2001년에 검사 개발과정을 거쳐 표준화되었다. 검사의 신뢰도가 .74에서 .94의 범위를 나타냈고, 하위척도들 역시 모두 .76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또한 성심리검사의 하위척도와 측정하는 영역의 실제 성행동과 관련된 개인 신상을 묻는 문항들 간에 대체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어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음을 기존 연구에서 보여줬다(박영숙, 2001).

중학생용 성심리검사 개발 이후, 청소년 성 전문가들은 성교육과 성상담장면에서 중학생용 성심리검사(박영숙, 2001)를 사용해본 결과, 동성애 관련 성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할 때 동성애 문항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재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응답의 효율성을 위해 중복되는 유사 문항을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 중학생용 성심리검사를 적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된 것으로서, 이러한 제안을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표준화 당시 개발되었던 검사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정된 중학생용 성심리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01년 개발된 중학생용 성심리검사의 개발 내용을 토대로 척도와 문항수를 축소한 이후에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함으로써 현장에서의 검사 활용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학교 2학년생을 표집대상으로 한 이유는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중학생으로서 성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를 알아보기에 미흡하고 3학년은 성에 대해 많은 정보와 경험으로 인해 개인차이가 심하여 중학생을 대표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2학년이 중학생을 대표하는 학년으로 선정하여 이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중학생 남녀 성심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남자 중학교의 남학생과 여자 중학교의 여학생, 남녀공학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강남지역에서 4개교와 강북지역에서 4개교를 취하였다. 각 학교에서 2학년 2개 반씩을 무선 표집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표집된 전체 학생 수 52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성심리

표 1. 표집대상의 남녀 학생 수 비교

학교별	남중	여중	남녀 공학		전체
성별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명(%)	117(23)	125(25)	127(25)	130(26)	499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이후 499명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검사 실시는 2004년 9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행되었다

도 구

2001년 개발된 중학생용 성심리검사는 박영숙(2001)의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용 예비 성심리검사를 기반으로하여 중학생 대상의 성심리검사를 구성하고 표준화한 것이다. 이후 중학생들에게 실제 검사를 적용해 본 경험이 있는 성심리 전문가들과의 논의에 따라, 문항 수정을 거치게 되었다. 즉 성태도 하위척도에서 동성애 관련 문항을 삭제하였고,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묻고 있는 유사 문항을 제외시켰다. 동성애 문항들은"나는 동성애자들을 이해한다", "동성애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등으로 동성애적 행동이 비정상적인 행동이 아닌,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는 수용적인 태도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동성애 문항을 제외한 이유는 2000년부터 시작된 연예인 중심의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이 일반인들의 동성애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고(김태명, 2003), 청소년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동성애 문항들을 제외해야 하는 다른 이유는 동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을 들 수 있다. 장재홍 등(2003)에 의하면, 일부 청소년들은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서 자신들이 동성애가 아닌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동성친구를 좋아하는 것이 동성애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음란물 접속으로 인해 잘못된 성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그 결과 동성애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이 형성되거나(장지욱, 2004), 청소년들 중심의 인터넷 팬픽문화에서 동성에에 대한 지나친 미화가 형성되기도 하는데(박수진, 2004),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환경에 의해 형성된 청소년들의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동성애 태도 문항은 태도가 아닌, 부정확한 성지식이나 왜곡된 성 개념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성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삭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반복 문항을 삭제한 경우는 성태도 하위검사 중 7번"나는 성관계를 할 경우 반드시 피임을 하겠다"와 거의 같은 내용을 측정하는 문항인 "나는 성관계를 할 경우 반드시 피임기구를 준비하겠다"를 삭제하는 것과 같이 반복 측정하는 문항을 삭제하여 문항수를 축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2001년 개발된 총 95개 문항 중에서 동성애 3문항, 유사 반

표 2. 성심리검사의 하위척도 및 문항 수

성심리검사의 하위검사들		하위검사의 구성	문항수
성심리검사	성태도 검사	일탈 수용성	5
		피임 소홀	4
		개 방 성	3
		자위 긍정성	4
	성충동성 검사	충 동 성	6
		사이버섹스 중독성	5
		자위 불안성	4
	성대처행동 검사	통 제 성	10
		표 현 성	7
	성지식검사	성 지 식	27

복 17문항 등 총 20개 문항이 삭제된, 전체 75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검사의 하위척도별 문항 수는 표 2와 같다.

성심리검사의 각 하위검사들, 즉 성태도검사와 성충동성검사, 성대처행동검사의 반응양식은 "나와는 상관없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리커르트식 6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정답이 있는 성지식검사의 모든 문항에 대해서는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이후 본 논문에서는 성태도 하위검사, 성충동성 하위검사, 성 대처행동 하위검사를 각각 성태도검사, 성충동성검사, 성대처행동검사로 기술할 것이다.

절차 및 분석방법

학생들에게 성심리검사 75개 문항을 하나의 질문지로 나눠주고 자기보고식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성과 관련한 질문을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하는 것이므로, 응답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사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교사가 입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지에 비밀을 보장하겠다는 문구를 명시화하였다.

검사 문항 및 척도를 개발 당시보다 축소하였으므로 검사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각 척도내 문항들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구인타당도를 확증하기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를 모두 살펴서 판단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적합한 모형을 선택한 이후, 성별에 따라서도 모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보았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4.0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통계분석은 SPSSWIN 13.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성심리검사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및 내적합치도

성심리검사는 세 개의 하위 검사, 즉 성태도, 성충동성, 성대처행동 아래 각각 하위척도로 구성된 검사이므로, 각 하위 검사별로 요인분석을 하였다. 세 개의 하위 검사는 공통요인분석 방법과 사교회전으로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검사 문항수와 척도가 줄었음에도 2001년 개발되었던 검사와 같은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은 성태도검사 16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이며, 표 4는 성충동성 검사 요인분석 결과, 표 5는 성대처행동 검사 요인분석 결과이다.

본 검사 하위척도의 신뢰도를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분석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신뢰도 수치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태도 검사와 성충동검사의 신뢰도 계수가 .852와 .928로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성대처행동검사도 .784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성지식검사의 경우 검사를 개발할 당시 문항-총점간 상관이 낮더라도 중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내용들을 교육적 입장에서 최종 검사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체로 2001년 검사개발당시의 내적합치도 결과와 비슷한

표 3. 성태도 검사의 구조계수 행렬

문 항	요 인				공통분
	자위 긍정성	일탈 수용성	피임 소홀	개방성	
2. 자위행위는 불결한 행동이다.	.896	-.090	.007	-.142	.741
10. 자위는 불결하다.	.850	-.110	.019	-.212	.831
1. 자위를 하는 청소년은 비정상이다.	.839	-.171	-.054	-.069	.820
4. 자위로 성욕을 해소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809	-.117	.004	-.095	.678
9. 사람들은 남몰래 상대방의 나체를 훔쳐보고 싶어한다	-.194	.729	-.060	.060	.480
10. 여성들은 마음속으로 난폭한 성관계를 원한다.	-.083	.694	.318	.002	.436
16. 남성들은 마음속으로 난폭한 성관계를 원한다.	.141	.680	.021	.056	.563
14. 야한 동영상이나 야한 소설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다	-.327	.637	-.058	.168	.664
5. 누구라도 이성의 몸을 만져보고 싶어한다.	-.232	.591	-.066	.269	.576
12. 피임은 성행위 쾌감을 방해하므로 하지 않겠다.	.015	.185	.769	.013	.780
7. 나는 성관계를 할 경우 반드시 피임하겠다.	-.011	.093	-.744	.029	.590
13. 이성친구와 피임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081	.048	-.626	-.173	.626
15. 임신이 되더라도 사후 피임을 하면 되므로 반드시 피임해야할 필요는 없다.	.043	.043	.619	.196	.430
3. 서로 사랑한다면 결혼하기 전이라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	-.038	.163	.218	.863	.545
8. 결혼 전 성관계는 부도덕한 관계이다.	.350	-.074	-.206	-.703	.425
6. 음란물은 성적 긴장과 욕구 해소에 도움을 준다	-.288	.358	.006	.474	.486
고유치	3.325	2.501	2.12	1.719	9.671
설명 분산(%)	20.78	15.63	13.28	10.75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위 검사간 상관

성심리검사 하위 검사 및 척도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성태도검사와 성충동성검사 및 성대처검사간의 상관계수가 .64와 .39이며, 성충동성검사와 성대처검사간의 상관계수가 .62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성에 대한 태도와 충동성 대처 행동간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성지식검사는 다른 성심리 검사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는 않으나, 성태도 검사의 하위척도인 피임 소홀과는 부적인 상관(r= -.17), 자위

표 4. 성충동성검사의 구조계수 행렬

문 항	요인			공통분
	충동성	사이버섹스 중독성	자위 불안성	
11. 이성의 몸을 몰래 만져보고 싶을 때가 있다.	.863	.105	.013	.704
15. 몰래 상대방의 나체를 훔쳐보고 싶다.	.807	.193	.097	.642
10. 강제적으로 성관계하는 것을 상상할 때가 있다.	.755	.120	.199	.759
13. 영화나 비디오에서 성폭행 장면을 보면 따라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727	.183	.201	.633
4. 섹스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오른다.	.674	.410	.101	.663
8.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성관계가 하고 싶을 때가 있다.	.672	.283	.199	.591
7. 야한 동영상 보는 것을 줄이려고 노력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262	.793	.249	.686
2. 내가 야한 동영상 본다는 사실을 친한 친구에게 숨기고 있다.	.004	.772	.215	.571
1. 야한 동영상 보는 것을 그만두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다.	.291	.757	.216	.700
7. 야한 동영상 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339	.720	.230	.624
5. 나는 야한 동영상을 보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321	.705	.250	.756
12. 자위를 많이 하면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다.	.160	.189	.795	.694
9. 나는 자위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029	.293	.783	.602
14. 나는 자위행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359	.144	.667	.594
6. 자위를 즐기면 이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없을까봐 두렵다.	.189	.393	.633	.698
고유치	3.962	3.454	2.502	9.918
설명 분산(%)	26.413	23.030	16.678	

긍정성과는 정적인 상관(r= .12)을 나타냄으로써 성지식이 성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학생들의 성에 대한 인지적 측면이 행동적 및 정서적 측면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하위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조작적인 정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인과 구인을 측정하도록 가정된 관계구조가 얼마나 경험적 자료와 일치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능력검사인 성지식검사를 제외하고, 성태도 검사와 성충동성 검사, 성대처행동 검사의 9개 하위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인 검사간의 관련성을 고려한 2단계 위계모형(a)을 설정하였으며, 대안모형으로 검사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는 2단계 위계모형(b), 평면모형(c), 검사내의

표 5. 성대처행동 검사의 구조계수 행렬

문 항	요인		공통분
	통제성	표현성	
12. 성적 충동을 잊으려한다.	.823	.185	.554
16. 성적 충동이 가라앉기를 바란다	.774	.258	.544
4. 성적인 충동을 억누른다.	.765	.190	.426
9. 게임을 하면서 성적 충동을 극복하려 한다.	.725	.256	.621
13. 공부를 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며 성충동을 해소한다	.725	.238	.582
5. 성적 충동을 잊어버리기 위해 잠을 오래 잔다.	.699	.304	.584
1. 운동을 하면서 성충동을 잊으려고 한다.	.686	.289	.476
8. 될 수 있으면 성적 자극 받는 것을 피한다.	.669	.184	.482
11. 성적 충동 줄이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한다.	.603	.304	.591
3.부모와 함께 성충동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본다.	.537	.371	.551
14. 이성친구와 성행위하는 장면을 상상해본다.	.277	.747	.456
15. 친구들과 함께 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072	.731	.712
6. 성적 행동에 관한 공상을 즐긴다.	.313	.697	.582
17. 언젠가는 성행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공상을 한다	.280	.689	.634
7. 성에 대해 이성친구와 털어놓고 이야기 해본다.	.186	.665	.540
10. 과거 경험했던 유쾌한 성적 장면을 기억해본다.	.346	.657	.665
2.성적 충동을 참을 수 없으면 자위를 한다.	.461	.576	.554
고유치	5.596	3.956	9.552
설명 분산(%)	32.915	23.273	

표 6. 성심리검사 척도의 문항별 내적합치도 α

하위 검사	성태도					성충동성				성대처행동			성지식
개별 하위 척도	일탈 수용성	피임	개방성	자위 긍정성	전체	충동성	사이버 섹스 중독성	자위 불안성	전체	통제성	표현성	전체	전체
내적 합치도	.790	.688	.661	.902	.852	.914	.837	.800	.928	.793	.765	.784	.606

표 7. 성심리 검사 및 척도간 상관

	일탈 수용성	개방성	피임 소홀	자위 긍정성	성태도 검사 전체	충동성	사이버 섹스 중독성	자위 불안성	성충동성 검사 전체	통제성	표현성	성대처 검사 전체	성지식 검사 전체
일탈 수용성	1.00												
개방성	.48**	1.00											
피임 소홀	.27**	.36**	1.00										
자위 긍정성	.45**	.47**	.18**	1.00									
성태도 검사 전체	.79**	.75**	.58**	.75**	1.00								
충동성	.69**	.45**	.22**	.48**	.65**	1.00							
사이버섹스 중독성	.54**	.39**	.26**	.40**	.56**	.68**	1.00						
자위 불안	.45**	.25**	.18**	.31**	.43**	.64**	.65**	1.00					
성충동 검사 전체	.65**	.42**	.25**	.47**	.64**	.91**	.86**	.85**	1.00				
통제성	.14**	.02	.04	.13**	.13**	.24**	.28**	.46**	.36**	1.00			
표현성	.53**	.38**	.12**	.45**	.53**	.67**	.47**	.43**	.62**	.18**	1.00		
성대처행동 검사 전체	.40**	.23**	.10*	.35**	.39**	.55**	.47**	.58**	.62**	.83**	.70**	1.00	
성지식	.02	.06	-.17**	.12**	.02	-.01	-.05	-.07	-.04	-.01	.04	.02	1.00

** p <.01, * p < .05

표 8. 연구모형과 대안모형들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sig*	*RMSEA*	*TLI*	*CFI*
모형a	2699.300	1069	.000	.055	.840	.848
모형b	3359.324	1072	.000	.065	.776	.787
모형c	4324.967	1080	.000	.078	.900	.908
모형d	3344.341	1070	.000	.065	.777	.789
모형e	2699.300	1069	.000	.055	.840	.848

척도간의 관련성을 고려한 평면모형(d), 3단계 위계모형(e)을 설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비교를 위해 표본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카이자승 값 이외에 비교적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델의 간명성을 선호하는 지수로 알려진 TLI, RMSEA, 그리고 모델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으나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델 오류를 측정하는 CFI를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들의 적합도 지수를 검토한 결과, 연구모형인 2단계 위계구조를 가진 모형a 와 3단계 고차 위계구조로 이뤄진 모형e 가 적합도 지수 상에서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위계구조와 내용이 다르지만 적합도 산출의 수리적 알고리즘이 동일한 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이해된다. 모형a,모형e,모형c가 모형b와 모형d에 비해서는 자료에 더 잘 부합하는 모형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RMSEA값을 고려해볼 때 모형a와 모형e가 더 양호한 모형으로 사료된다. 두 모형간의 적합도 지수가 동일하므로, 연구자의 이론적 가설을 뒷받침하는 연구모형인 모형a가 자료 설명에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에 관한 교차타당화

남학생과 여학생의 각 하위척도별 차이검증 결과, 모든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9에서 보여 지듯이 성태도, 성충동성, 성대처행동검사 내의 하위척도들 및 성태도, 성충동, 성대처행동 하위검사들, 그리고 전체 성심리검사 모두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지식검사를 제외한 모든 하위 척도에서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표 9.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심리검사 하위척도 및 검사의 평균차이분석

	집 단	평균	*t*값	*p*값
일탈 수용성	남학생	14.4262	33.280	.000
	여학생	12.0941		
개방성	남학생	8.0041	23.293	.000
	여학생	6.7490		
피임 소홀	남학생	8.3607	11.699	.001
	여학생	7.2863		
자위긍정성	남학생	13.1189	38.103	.000
	여학생	10.7255		
성태도검사 전체	남학생	43.9098	52.825	.000
	여학생	36.8549		
충동성	남학생	14.9549	134.671	.000
	여학생	8.9373		
사이버섹스 중독성	남학생	9.6352	112.579	.000
	여학생	5.9608		
자위불안성	남학생	9.3320	116.501	.000
	여학생	5.5333		
성충동검사 전체	남학생	33.9221	170.848	.000
	여학생	20.4314		
통제성	남학생	4.2336	49.448	.000
	여학생	2.6431		
표현성	남학생	2.6270	37.889	.000
	여학생	1.5255		
성대처검사 전체	남학생	6.8607	78.638	.000
	여학생	4.1686		
성지식검사 전체	남학생	20.2746	11.626	.001
	여학생	21.2588		

표 10.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별 모형의 적합도지수

집단	모형	χ^2	*df*	*sig*	*RMSEA*	*TLI*	*CFI*
남학생	모형a	1999.016	1069	.000	.060	.788	.799
	모형b	2278.751	1072	.000	.068	.728	.739
	모형c	2611.373	1080	.000	.076	.655	.669
	모형d	2268.872	1070	.000	.068	.727	.741
여학생	모형a	1962.454	1069	.000	.057	.818	.828
	모형b	2251.229	1072	.000	.134	.760	.772
	모형c	2242.490	1080	.000	.077	.676	.690
	모형d	2242.417	1070	.000	.066	.761	.774

있으며 특히 성충동 검사에서 보여 지듯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인 충동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별에 따라서 검사에서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검사의 요인구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성별을 교차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적합도지수가 동일하게 나왔던 모형a와 모형e의 경우, 연구자의 이론적 가설에 의해 뒷받침되는 모형a를 선택하고 모형e는 삭제한 다음, 연구모형인 모형a와 세 가지의 대안모형에 대해 성별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지수를 살펴보았다. 표 10에서 제시하였듯이, 남학생이나 여학생 집단에서 모두 다른 모형에 비해 모형a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 집단에서 각 검사 간에 관련성이 없음을 가정한 1차 위계모형인 모형b는 부적절한 모형으로 검증되었고, 각 검사의 관련성을 가정한 1차 위계모형인 모형a가 적합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검사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검사를 해석함이 용이함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두 집단 모두에서 모형a가 다른 모형에 비해 양호한 적합도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성별에 따라 검사의 구조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a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요인구조의 동일성을 검증하고자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 대해 다중집단분석을 하였다. 다중집단분석 결과 RMSEA .043, TLI .789, CFI .796 등으로 적합도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요인구조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한 뒤, 회귀계수를 고정한 다음 모형a에 대해 다중집단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회귀계수를 동등하다고 고정한 이유는 두 집단의 회귀가중치의 유사성이 모형의 동일함에서 오는 것인지를 확인하기위한 절차이다. 그 결과 회귀계수를 고정하지 않았을 때의 ECVI 지수가 9.218이며, 회귀계수를 고정했을 때의 ECVI 지수는 9.098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회귀계수를 고정했을 때의 ECVI 지수 값이 다소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CVI(expected cross-validation index)는 교차타당성을 수행했을 때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수로서, 하한 값은 0이지만 상한 값의 한계는 없으며 이 값이 작을수록 모형 적합

도가 좋음을 의미한다(배병렬,2002). 다중집단 분석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고 회귀계수를 고정했을 때의 ECVI 값이 고정전보다 다소 적게 나타남을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동일한 모형을 안정되게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용 성심리검사의 타당성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학생용 성심리검사는 성 태도, 충동성, 대처행동 및 성지식을 평가함으로써 청소년들 가운데 중학생들의 성심리상태를 이해하고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발되었다(박영숙, 2001). 2001년 문항 개발 당시 전국 표집의 1,231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해 봄으로써 최종문항을 확정하였다. 개발 이후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결과 및 성심리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하여, 척도와 문항수를 축소하는 과정을 거쳤다. 10개 척도 95문항이었던 검사가 이 과정을 거쳐 9개 척도 75문항으로 수정되었다. 검사 개발당시에 비해 척도와 문항수가 축소되었으므로, 검사의 신뢰도와 요인분석을 다시 살펴보았으며 구인 타당화의 일환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여 검사의 타당성을 알아보았다.

각 검사 하위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성태도, 성충동성, 성대처행동의 세 하위검사 모두에서 2001년 검사 개발 당시의 요인구조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즉 성태도 검사의 하위척도로 일탈 수용성, 피임 소홀, 개방성, 자위긍정성의 4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성충동성 검사는 충동성, 사이버섹스 중독성, 자위불안성의 3개 요인이 나왔다. 또한 성대처행동검사도 2개 요인으로 나타남을 통해 검사 개발시에 설정한 요인구조가 재확인되었다. 검사 및 하위척도의 문항별 내적합치도가 .688에서 .928 사이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성지식검사는 .606의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능력검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 수준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문항 개발 당시 문항-총점간 상관이 다소 낮더라도 중학생이면 꼭 알아야할 성지식 내용들을 포함하여 성지식 전반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으로도 사료된다. 검사의 하위척도가 측정하는 바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태도 하위 검사에 있어서 일탈 수용성 태도는 일탈적인 성행동이 특정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이라는 태도, 즉 일탈적인 성행동에 대한 허용적이고 수용적 태도를 나타내고, 개방성 태도는 미혼 성관계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자위긍정성 태도는 자위행위가 건강한 방식으로 성욕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상적인 행위라는 긍정적 태도를 반영하고, 피임 소홀 태도는 피임이 위험 성행동 예방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피임을 소홀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준다. 성충동 하위검사의 경우, 충동성척도는 성 충동성이 강하여 이에 대한 조절이 어렵고,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사이버섹스 중독성척도는 컴퓨터를 매개로 성적 행동에 집착하고 이러한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 상태를 반영하며, 자위 불안성척도는 자위행위에 대한 불안이나 죄의식 등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와 관련이 있다. 성행동 대처 하위검사의 경우, 통제성 대처는 성적

욕구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며, 표현성 대처는 성욕구를 발산하고 표현하는 방식의 대처를 반영한다. 성지식검사는 성과 관련된 생리와 신체구조, 자위행위와 성행위, 임신과 출산, 피임법, 성병 및 성폭행 등에 관한 성지식의 정도를 나타낸다.

각 검사 및 하위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태도검사와 성충동성 검사, 성대처행동간의 상관계수가 .70에서 .85 사이로 검사간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이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접촉할수록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성태도를 보인다(윤진, 박윤창, 1995; 이명화, 1998; 이상문, 2006)는 연구결과는 성태도검사와 성충동검사간의 높은 상관이 의미있음을 뒷받침해준다. 성충동성 검사 하위척도인 충동성 및 사이버섹스중독성간의 상관이 높음은 음란물의 노출 빈도와 성태도의 개방성간에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음란물 체험이 성적 충동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Kim,2001)결과와 일치한다.

성태도검사 가운데 자위긍정성 태도는 성충동성검사의 충동성 및 사이버섹스 중독성과 상관이 높기도 하지만 성대처행동 가운데 통제성 대처보다는 표현성 대처와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위긍정성이 성욕구를 억제하기보다는 발산하려는 대처방식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충동성 검사가 성대처검사의 통제성 대처보다는 표현성 대처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음은 성적 충동성이 높을수록 통제적인 대처를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표출하는 대처방식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성지식검사는 다른 검사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성태도검사의 하위척도인 피임 소홀 태도와 자위긍정성 태도와 의미있는 상관을 보였다. 특히 피임 소홀 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성지식이 부족할수록 피임의 필요성을 의식하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태도가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즉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성지식이 피임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성지식의 정도에 대한 파악이 중학생의 성심리검사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성지식을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성태도를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김미경, 2000; 박성정, 1997; 박충선, 한유정,2001; 이문희, 정옥분, 1994; 이양미 ,2000; Meston, Trapnell & Gorzalka, 1998; Tikoo, 1996) 및 남중생이 여중생보다 자위행위와 혼전성교에 대해 더 진보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박인혜, 한유정, 윤현숙(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충동을 느낀 경험이 더 많고(장지욱, 2004), 적극적인 음란물 접촉 빈도와 자위행위 경험이 보다 더 많음을 보고(Santrock, 1983; 문화방송,1999; 김정옥,1992; 신남옥, 1992; 손혜옥 외, 1999)한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인 욕구와 충동을 더 많이 느끼지만, 성지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정답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성지식에서의 성차의 원인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여학생들에 대한 성교육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이규숙,1999)이라는 선행연구를 비춰볼 때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능력을 측정하는 성지식검사를 제외한 성태도검사와 성충동성 검사, 성대처행동 검사의 하위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검사간의 관련성을 고려한 2단계 위계모형을 연구모형으로 하였으며, 네 개의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적합한 모형을 확인한 결과 연구모형인 검사간의 관련성이 있는 2단계 위계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이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결정되는 다차원적이고 중다특성적이라는 개념(Thorne, 1966)을 기초로 하여, 성의 인지적, 정서적 차원을 포괄하는 다면적인 성심리검사를 개발하고자(박영숙,전영민, 2001)했던 검사의 제작 의도에 부합한다. 성지식검사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점수가 높으나, 다른 모든 하위척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므로, 동일한 모형을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적용함이 타당한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성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모형을 검증하고 두 집단을 대상으로 중다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연구모형인 검사간의 관련성이 있는 2단계 위계모형이 가장 적합하게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인 태도나 행동, 욕구가 더 높다는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모형의 적용이 가능함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표집대상의 제한을 들 수 있다. 중학교 2학년을 표집대상으로 한 이유는 성에 대한 정보나 경험에 있어 중학생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표집이었지만, 다른 학년에 대해서도 성심리검사에 관한 본 연구와 같은 방식이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행동이 증가하면서 성개방적인 태도가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박성정, 1997; 홍강의, 신민섭, 1994)과, 학년이 높을수록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고 진보적이며, 성 충동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대처방식도 다양해진다는 개발 당시의 연구 결과(박영숙, 전영민, 2002)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성별에 따른 모형의 동질성 검증뿐만 아니라, 1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연구모형이 지지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검사의 예언타당도와 관련하여 실제 성행동과 검사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보다 정확한 평가 및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사척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가치관이 위험한 성행동에 주요 매개변인이라는 연구결과(Gillmore, Butler, Lohr & Gilchrist, 1992; Jemmott & Jemmott, 1990; Kotchick, Shaffer, Forehand & Miller, 2001)를 고려하여, 성 가치관이나 성 의식을 성심리검사의 하위 검사로 보완적으로 추가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이 제기된다(박영숙, 2001 재인용).

셋째, 검사 문항의 중복성의 문제점을 추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단축형 검사 문항들 가운데 일부 문항, 예컨대 자위 긍정성에서 "자위는 불결하다"와 "자위행위는 불결한 행위이다"라는 문항에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문항의 중복성의 문제점 또는 이점에 대해 추후 축적되는 연구 자료들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이에 따라 수정하고자 한다.

넷째 앞으로 본 검사도구를 사용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성행동뿐만 아니라 위험하거나 비행적인 성행동을 예견하고 진단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이 가

능하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 성적인 문제행동을 야기하고 있거나 성폭력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임상 장면 등에서의 누적된 연구를 통하여 성심리검사가 위험하거나 폭력적인 성적 행동을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의 개발(2001)에서도 이미 제기되었던 점인데 온라인용 성심리검사의 제작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심리검사가 학교라는 물리적이면서도 심리적인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는 솔직하게 응답하기에는 어려운 검사일 수 있으므로, 검사 응답의 신뢰성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심리검사보다 검사반응의 신뢰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솔직하게 응답할 가능성을 높여주도록 온라인용 성심리검사의 개발이 필요하며, 검사 이후에 추가적인 도움이나 상담을 받거나 올바른 성지식과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는 성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001년 국내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최초로 개발된 성심리검사를 축소하여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검사의 실용성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실제 수요자인 중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다 짧은 시간 내에 다각적인 방향에서 본인의 성관련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성교육과 성상담 및 성관련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평가도구로 활용하도록 개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참고문헌

김막희 (2003). 학급활동 및 사회적 추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인터넷 음란물 접촉 실태에 따른 청소년의 성태도, 성행동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미경 (2000).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 태도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미주 (1997). 초중고등 성교육 교재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옥 (1992). 울릉군 청소년들의 성의식 실태조사연구. 가정생활연구, 8, 30-31.

김태명 (2003). 성적 소수자에 대한 법의 태도 변화. 성평등연구, 7, 1-8.

김혜원 (2003). 남녀청소년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현황 및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309-328.

문화방송(1991). 1991 MBC 청소년 백서.

박성정 (1997). 청소년의 성(이성교제, 성행동, 혼전 성허용성, 성지식, 성역할특성, 성교육에 관한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수진 (2004). 청소년의 팬픽문화와 동성애에 대한 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영숙 (2001). 중학생용 성심리검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259-278.

박영숙, 전영민 (2001). 청소년 성심리검사의 신뢰도와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4), 775-793.

박영숙, 전영민 (2002). 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91-909.

박인혜, 한유정, 윤현숙 (1996). 남녀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성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9(1), 99-108.

배병렬 (2002). 구조방정식 모델 이해와 활용. 대전: 도서출판 대경.

손혜옥, 김혜옥, 김대환, 이종태 (1999). 부산·경남지역 중학교 남학생의 학년에 따른 컴퓨터 음란물 접촉 실태에 관하 연구.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16(2), 55-66.

신남옥 (1992). 고교생의 성지식 정도와 태도 및 성교육 요구시기에 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옥복연 (2000). 사이버 성상담에 나타난 청소년 성고민 유형과 실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휘 논문.

윤진,박윤창 (1995). 음란 출판물이 청소년의 성행동 및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이경호 (2001). 면대면 상담과 사이버 상담에서 상담 요청 의도의 차이.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이규숙 (2000). 고교생의 성 실태 및 교육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고교생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명화 (1998). 음란매체 접촉에 따른 성깔등에 성태도와 지식이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문희, 정옥분 (1994). 도시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와 성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2), 41-58.

이상문 (2006). 고등학생의 음란물 접촉과 성충동, 성지식, 성태도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양미 (2000).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행동 경험.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재홍, 지승희, 이영선, 박정민, 이자영, 박성호 (2003). 청소년의 동성애에 대한 생각 및 현황 분석.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 49. 한국 청소년상담원.

장지욱 (2004). 중학생의 성지식 및 성교육 실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현갑, 정찬범, 조긍호, 오경자, 윤진 외 (1998). 심리학.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전순호 (2000). 청소년의 성가치관 및 성교육에 관한 연구-공주시, 군소재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민자 (2000) 사이버 상담에 나타난 청소년의 문제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청소년상담원 (1999). 청소년 사이버 문화 실태조사. 한국 청소년상담원.

홍강의, 신민섭 (1994).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성 정체감 발달. 신경정신의학회, 33(6), 1378-1388.

Beelmann, A., Pfingsten, U., & Losel, F. (1994). Effects of training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A meta-analysis of recent evaluation studie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 260-271.

Crooks, R., & Baur, K. (2002). *Our sexuality* (8th ed.) (pp. 375-384).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DSWORTH.

Gillmore, M. R., Butler, S. S., Lohr, M. J., & Gilchrist, L. (1992). Substance Use and

Other Factors Associated With Risky Sexual Behavior Among Pregnant Adolescent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4*, 255-261, 268.

Gruber, E,. & Grube, J. W. (2000). Adolescent sexuality and the media: A review of current knowledge and implications. *West Journal of MEdicine, 172,* 210-214.

Jemmott, L. S., & Jemmott, J. B. (1990).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Risky Sexual Behavior among Inner-city Black Mal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5*, 346-369.

Kim Young-Ho (2001). Korean adolescent's health risk behavior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selected psychological construct.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9(40)*, 298-306.

Kotchick, B. A., Shaffer, A., Forehand, R., Miller, K. S. (2001). Adolescent sexual risk behavior: A multi-system perspective. Clinical Psychological Review, 21(4), 493-519.

Lief, H. I., Fullard, W., & Devin, S. J. (1990). A new measure of adolescent sexuality: SKAT-A. Journal of Sex Education and Therapy, 16, 79-91.

Liete, R. M., Buoncompagno, E. M., Liete, A. C. Mergulhao, E. A., & Battistoni, M. M. (1995). Psychosexual characteristics of male university students in Brazil. Adolescence, 30, 363-380.

Meston, M. M, Trapnell, P. D., & Gorzalka, B. B. (1998).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 176-188.

Michael, R., Gagnon, J., Laumann, E., & Kolata, G. (1994). Sex in America: *A definitive study*. New York: Little, Brown, and Company.

Santrok, J. W. (1983). *Adolescence an introduction*. Wm.C.Brown Company Publishers. 430.

Thorne, F. C.(1966). A factorial study of sexuality in adult mal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 378-386.

Tikoo, M. (1996). Sexual attitude and behaviors of school students(grades 6-12) in India.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4(1),* 77-84.

원고접수일 : 2006. 8. 31
게재결정일 : 2006. 10. 31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6, Vol. 25, No. 4, 1087-1104

Validation Study of the Sexuality Inventory for Middle School Students

Young Sook Park
Ewha Womans University

Park So Yeu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un Young-Min
The Korean Alcohol Research Found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validity of revised Sexuality Inventory for Middle School Students(SI-MS)(Park, 2001). The revised Sexuality Inventory(SI-R) consists of 4 scales -Sexual Attitude Test, Sexual Impulsivity Test, Sexual Coping behavior Test and Sexual Knowlege Test. In total, there are 10 subscales and 75 items. The revised Sexuality Inventory was applied to 499 middle school second-year grad students to evaluate its reliability for the adequacy of items, and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Sexuality Inventory was evaluat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vised inventory had the same factor structure as the SI-MS and that it had reliable internal consistency between 0.606 and 0.928. The analysis also showed the sub-scales of the three scales (Sexual Attitude Test, Sexual Impulsivity Test, Sexual Coping behavior Test) to be strongly correlated. In addition, there wa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Sexual Attitude Test, Sexual Impulsivity Test and Sexual Coping Behavior Test. To evaluate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Sexuality Inventory, various models were examin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ne study model consisting of 3 tests (Sexual Knowledge Test was left out), and four alternative models. The results showed the study model consisting of 3 scales and 10 sub-scales to be the most appropriate. Further studie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whether it was appropriate to apply the same model to both sex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aforementioned study model was more appropriate than the aforementioned alternative models for both sexes. In addition, the study model was further examined through the multi-group analysis where the members of both sexes were interchang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factor structures of both sexes were the same. As a result, it was shown that the application of the same model to both sexes was appropriate. In conclusion, the validity of the Sexuality Inventory for Middle School Students was confirmed.

Keywords : sexuality inventory, adolescents, sexual attitude, sexual impulsivity, sexual coping behavior, sexual knowledge